

## 두란노 소식

두란노 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9월 15일 금요일(저녁 7:30), 9월 16일 토요일(새벽 6:00) 9월 17일 주일(오후 2:00) 세 차례 걸쳐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고 계신 안충효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집회를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10월 8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 한해의 감사를 미리 묵상하며 하나님께 준비된 감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공휴일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으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8일 주일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월 17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자 명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 10월 5일 목요일 저녁 6:30에 황우경 / 이명순집사님 아들, 황명익군과 심예진양의 결혼식에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많이 동참해주셔서 축복과 축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4.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도시간은 매일 저녁 8~10시, 새벽 예배는 화~토 오전 6시,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 8시, 금요 기도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많이 동참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00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00

신앙 상담  
647.980.5791  
89 Finch W, North york ON, M2NH6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_\_\_\_\_

# 두란노 교회

D / U / R / A / N / N / O C H U R C H



## 섬김의 손길

**담임목사** 이강화 목사  
**전도사** 조선희 전도사  
**찬양팀** 인도 | 구수진 사모, 강지연, 김샬리  
연주 | 김동해, 오준성, 윤유진, 이웅희, 이기준  
기슬 | 이기훈, 한정훈, 박지은

**대표기도자** 17일 강지연 / 24일 기준남 / 10월 1일 이웅희 / 8일 윤유진

# 주일 예배 순서

SEPTEMBER 10, 2017

|        |       |                   |
|--------|-------|-------------------|
| 찬양과 기도 | ----- | 찬양팀 (인도: 구수진 사모)  |
| 대표 기도  | ----- | 박현미 집사            |
| 헌금     | ----- | TRUE WORSHIPERS12 |
| 성경봉독   | ----- | 마태복음 20:1~16      |
| 말씀선포   | ----- | “은혜받은 자의 마음”      |
| 축도     | ----- | 이강화 목사            |
| 두란노 소식 | ----- | 4면에 있습니다          |

※ 헌금은 예배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헌금함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의 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170903 주일예배  
애 3:17~26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 그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는 두 눈이 뽑히는 고문으로 바벨론에서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의 만행으로 예루살렘의 곳곳은 불탔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했든지 죄수들을 꿇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는 것을 보면서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휩쓸고 지나간 재앙의 남은 참상은 비참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극심한 빈곤으로 남겨진 여인들과 아이들은 폐허가 된 도시를 배회하며 기아와 범죄에 허덕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이방인으로서의 학대와 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참상을 바라보며 눈물로 애통함을 노래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고 그 심경을 애통함으로 기록한 책이 오늘의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 예레미야에게 벌어진 상황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애가 3:17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9

내 고통과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신의 소망 없음과 현실적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22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 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리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힘든 중에, 낙심 중에 오히려 소망을 찾아낸것이 바로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입니다. 극한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여기서 부터가 진짜 찬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실과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을것 같은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 인자하심을 붙들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은 변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은 우릴 속이고 현실은 우릴 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릴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며 우릴 향한 선한 계획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잘 풀리고, 상황이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 형통함과 문제 해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찬양의 재료이지만,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영원토록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근거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변함없는 이유, 변함없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붙드니까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믿음의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소망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뭘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이대로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미래가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을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현실을 붙들면 우리가 변덕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변함이 없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고하게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현실이 안개처럼 곧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로 이뤄집니다. 실제로 우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미 예레미야의 소망과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정말 성실하셔서 70년만에 말도 안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현실 붙들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함과 신실하심을 의지합시다.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